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강 가 윤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A Study on Female Characters in James Joyce's
Dubliners

201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강 가 윤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지도교수 이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강 가 윤

강가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 경 규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금 희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정 화 (인)

201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II. 운명에 순응한 여성들: 「에블린」, 「진흙」 ..	5
III. 좌절에 부딪힌 여성들: 「하숙집」, 「어머니」	17
IV.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여성들: 「망자」	30
V. 결 론	40
인용문헌	

ABSTRACT

A Study on Female Characters in James Joyce's *Dubliners*

Kang Ga yun

Adviser : Prof. Jung-Hwa Lee, Ph. 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female characters in James Joyce's *Dubliners*. Unlike some critics who have criticized Joyce as a misogynist, I suggest that Joyce should be regarded as an author who had a deep interest in gender issues. I first examine Eveline in "Eveline" and Maria in "Clay" as women who are victimized by a patriarchal society. And then, the study analyzes Mrs. Mooney in "The Boarding House" and Mrs. Kearney in "A Mother" in order to discuss their thwarted attempt to improve their daughters' lives. Finally, I posit that Joyce acknowledges women as a source of change through Lily, Ivors, and Gretta in "The Dead." By examining these female characters in *Dubliners*, the study highlights Joyce's implicit criticism of the harsh reality in which women were situated in early-twentieth-century Dublin.

I. 서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단순히 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를 넘어 세계 문학사를 통틀어 드물게 영향을 끼친 대작가이다. 조이스는 대중들에게는 높은 인기를 누리지 못하지만, 문학 전공자들에게는 꼭 주목해야 하는 작가로 꼽힌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을 통해 자신의 고향인 더블린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을 다룬다(이종일 322).

조이스에게 더블린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이스에게 더블린은 태어나고 자란 공간이면서 모든 사람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는 “잘 닦여진 거울” (Henke 31)과도 같은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조이스는 이들의 거울을 이용하여 부패해 가는 일상적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더블린은 마비의 중심지로 나타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상태를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공공생활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다. 즉, 이 작품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에서부터 문화적인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고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아일랜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Walzl 31).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아일랜드 중산층 인물들의 마비상태를 그리는 가운데 다양한 여성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김상효가 「『더블린 사람들』: 남성, 가부장중심주의와 그 해체」에서 말한 것처럼 “당대 아일랜드의 가정과 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남성·가부장중심주의의 지배적 관념을 더블린 사람들의 심각한 마비 증상”(1)으로 이해했다.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의 남성들이 해야 했던 일은 아일랜드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을 테지만, 『더블린 사람들』의 남성들은 그와 같은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여성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배하면서 남성과 가부장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인다. 조이스는 이처럼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억압받는 더블린 여성들이 희생적 삶을 강요받으며 사회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보았다. 조이스가 작품을 쓸 무렵의 사회적인 상황은 그가 여성들을 희생적으로 묘사하는데 배경이 된다.

월즐(Walzl)은 당시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인 상황을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여성들은 경제적인 기회가 부족했다. 1845년 대기근 이후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남성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은 훨씬 더 열악했다(Walzl 35). 둘째, 독신인구가 많았다. 경제적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결혼의 기회 역시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841년 아일랜드의 결혼률과 출생률이 서구사회에서 가장 낮았다(Walzl 35). 『더블린 사람들』에 독신자들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여성들은 대부분 30세 이후, 그리고 남성들은 35~40세에 결혼하였다(Walzl 36). 넷째, 결혼한 여성들의 출산율은 높아서 기혼여성들은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로 인해 여성들은 더욱 압박을 받았고, 경제 악화로 인해 남성들은 점점 알코올 중독이 되었으며 만취한 상태로 여성과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Walzl 36). 조이스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들을 작품 속에 그려낸다.

조이스가 그린 여성의 모습들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여성들을 수동적인 태도로 비참한 삶에 순응하고 감내하는 인물들로 그렸다고 평가하면서 조이스의 여성인물 묘사를 비판한다. 가령, “플로렌스 하우(Florence Howe)는 조이스의 여성관과 세계관이 명확하게 남성의 성향으로 물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조이스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존재이며,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이자 하인, 남성은 능동적인 존재이자 주인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Henke 13 재인용)라고 주장하면서 조이스를 여성비하 작가라고 보는 비평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또 다른 비평가들은 『더블린 사람들』에서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은 바로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제라고 주장하며 조이스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희생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강요당하는지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상효는 「『더블린 사람들』: 남성, 가부장중심주의와 그 해체」를

통해 “여성들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성중심주의적 관념을 자신들의 생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10)고 말한다. 이처럼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아일랜드 전역에 퍼져있는 가부장제의 관념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삶의 방식을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 1904년 8월 29일 조이스가 노라 바나클(Nora Barnacle)에게 보낸 편지는 조이스가 가정에서 어머니가 겪었던 삶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내가 집을 좋아할 수 있겠소? 우리 집은 흔한 중산층 가정으로 돈 씀씀이가 험한 습관 때문에 몰락했소.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의 수년간의 학대 그리고 나의 냉소적인 행동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갔소. 내가 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한 희생자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어머니를 희생자로 만든 체제를 저주했었소. 내 가족은 모두 열일곱 명이요.

How could I like the idea of home? My home was simply a middle class affair ruined by spendthrift habits.... My mother was slowly killed, I think, by my father's ill-treatment, by years of trouble, and by my cynical frankness of conduct. When I looked on her face as she lay in her coffin... I understood that I was looking on the face of a victim and I cursed the system which had made her a victim. We were seventeen in family. (Henke 37 재인용)

이 편지에서 조이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와 오랜 기간의 고통으로 죽어간 희생자로 보면서, 그녀를 희생자로 만들었던 사회 그리고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사는 여성들을 『더블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인물들의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더블린 여성들에 대한 조이스의 시각이 일부 비평가들이 비판하는 것보

다 훨씬 정교한 것이었음을 보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더블린 사람들』에 실린 단편들 중 여성인물의 역할이 부각된 「에블린」(“Eveline”), 「진흙」(“Clay”), 「하숙집」(“The Boarding House”), 「어머니」(“A Mother”), 「망자」(“The Dead”)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면서 사는 희생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지만 당시 사회상황으로 인해 의도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어머니들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망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 여성인물들과 게이브리엘(Gabriel)의 관계를 통하여 변화의 추동력으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분석한다.

II. 운명에 순응하는 여성들

『더블린 사람들』의 여성들은 종종 제국주의의 피해와 종교적 억압에 덧붙여, 가부장제의 억압까지 감수하며 사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번 장에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4개의 작품 「에블린」, 「진흙」, 「하숙집」, 「어머니」 중 「에블린」과 「진흙」의 주인공들인 에블린(Eveline)과 마리아(Maria)에 초점을 맞추어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살펴본다.

에블린은 순진하고 약한 마음을 가진 열아홉 살의 처녀이다. 그녀는 현재 조그만 갈색집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두 동생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 그녀는 직장일과 집안일을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번 돈은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린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돈조차 아버지는 험프게 쓰고 다니며, 에블린은 그러한 아버지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하면서 부족한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간다.

갈색은 조이스의 작품에서 흔히 마비와 부패의 이미지로 여겨진다(Gifford 43).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본 에블린이 살고 있는 작은 갈색 집은 당시 아일랜드의 경제적인 빈곤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비된 삶을 암시한다. 이러한 마비된 삶의 중심에 에블린이 서있고, 그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가정에 얽매인 생활을 근근이 이어 나간다. 그녀에게 가정이란 경제적인 희망도 없고 어떠한 불빛도 발견할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러한 상황 속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줄 이 하나 없이, 그녀 곁에는 그녀를 괴롭히는 아버지와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동생뿐이다. 이때, 그녀 앞에 나타난 구원의 손길이 바로 프랭크(Frank)이다. 프랭크는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yres)라는 새로운 세계를 그녀에게 제안하고, 그녀는 같이 떠나기로 약속한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먼 나라 이야기를 해주었고, 에블린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 꿈꾼다. 그러나 아버지는 “뱃놈들이란 게 어떤 놈들인데”(32)라며 그와의 만남을 가로막는다.

에블린의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모든 경제적인 능력을 에블린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녀를 구속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배

하는 가정에서 에블린에게 결혼은 행복을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아버지는 오로지 자신의 삶을 위해 그녀에게 그러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에블린에게 의존하면서도 여전히 가족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가부장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에블린이 떠나는 것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김상효가 「『더블린 사람들』: 남성, 가부장중심주의와 그 해체」에서 지적하듯이, 가부장적 환경 속에서 여성 개인의 삶과 의지 그리고 사랑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가족에 대한 희생과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다”(13). 에블린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고, 현재의 집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고민한다. 그녀는 거리의 풍금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집안 살림을 잘 보살피겠다는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떠올린다. 그러나 에블린은 “탈출해야 해!(33) 라는 말을 되뇌이며 다시 한 번 현실에서 탈출하려는 결심을 한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부두에 나가지만 역에는 갈색 짐을 든 군인들로 꽉 차있다(33). 갈색이 마비와 부패를 암시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갈색 짐은 그녀가 겪는 정신적, 행동적 마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그녀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을 선택하고, “가정을 위해 한 평생을 희생하며 희망 없이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반복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박윤기, 「제임스」 27).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어머니의 인생, 혼해 빠진 희생만 하다가 결국 미쳐 버리고 만 그 인생의 서글픈 환영이 처녀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마법을 걸어 왔다. 처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보같은 고집으로 끊임없이 되뇌던 말이 다시 들리자 몸서리가 쳐졌다. “데레바운 세라운! 데레바운 세라운!” 처녀는 갑자기 엄습해 오는 공포를 느끼며 일어섰다. 탈출 하는 거야! 탈출해야 해! 프랭크가 구해 줄거야. 프랭크가 삶 다운 삶을 잘하면 사랑까지도 줄 거야. 정

말이지 제대로 살고 싶었다.¹⁾

As she mused the pitiful vision of her mother' s life laid its spell on the very quick of her being - that life of common place sacrifices closing in final craziness.

She trembled as she heard again her mother' s voice saying constantly with foolish insistence: -Derevaun Seraun! Derevaun Seraun! She stood up in a sudden impulse of terror. Escape! She must escape! Frank would save her. He would give her life, perhaps love, too. But she wanted to live.

(33)

어머니의 마지막 외침 “데레바운 세라운”은 제일어로 “쾌락의 끝은 고통이다”라는 뜻이다. 김상효가 「『에블린』: 더블린사람들의 거울」에서 설명하듯이, “이 말은 어머니가 감내해 온 삶과 그 삶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과 광기를 나타내며, 에블린이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을 버리고 떠나려는 순간, 어머니가 에블린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93). 어머니는 결국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삶을 견디고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삶을 겪은 당사자가 그 삶을 그대로 자신의 딸에게 반복시키고자 한 어머니의 아이러니한 생각을 보여준다. 에블린에게 가정이란 박윤기가 「『에블린』: 자유를 향한 도피의 좌절」을 통해서 이야기 했던 “구속의 대상”(13)과 같은 것이다.

에블린이 모든 고민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종소리가 짹하고 울리면서 프랭크와 함께 가려고 했던 새로운 세계가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그녀는 떠나기를 포기하고 그때, 그녀는 수동적이 되어 어찌할 바 모르는 짐승처럼 맥이 풀린다. 에블린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으로 인한 억압과 더불어 마비된 가정환경 속에 구속되어 스스로 돌아온다. 그녀가 선택한 가

1) 본 논문에 사용된 *Dubliners*의 우리말 번역은 이종일의 번역판 『더블린 사람들』을 따른다

정을 위한 희생적 마비상태를 조이스는 “일종의 죄악”으로 간주했다(박윤기, 「여성주의」 286). 조이스는 이를 통해서 더블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녀가 이제까지 탈출에 실패한 원인을 다룬 비평서는 많았는데 그것은 에블린의 삶의 안내자 격인 “프랭크의 신뢰성”(박윤기, 「에블린」 6)이라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 당시 더블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선편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에블린에 대한 프랭크의 사랑에 의심을 품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프랭크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에블린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에블린은 프랭크와의 앞으로의 삶을 기대했으며, 그 와의 첫 만남에 설레면서 프랭크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월즐도 “프랭크는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인물”(48)로 보고 있다.

그녀가 탈출에 실패한 원인은 그녀의 수동성 때문이다. 그녀의 수동성은 작품 곳곳에 나타난다. 프랭크는 에블린을 포핀스(Poppens)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포핀스는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꼭두각시라는 뜻을 가진 애칭으로 “프랭크의 극진한 애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기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킨다”(안정숙 84). 조이스는 이와 같은 애칭을 통해 그녀의 수동성을 암시하면서, 그녀가 결국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없을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에블린의 집 벽면에는 성 마리아 알라코끄(Margaret Mary Alacouque)가 그려진 채색판화가 걸려있는데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림을 기계적으로 바라봐왔다. 박윤기는 “그림 속의 알라코끄는 어린 시절 대부분 자신을 부정하며 수녀원에서 보냈는데, 에블린 또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성모에게 의존하는 맹목적인 수동성을 보이는 것이다”(「여성주의」 286)라고 나타냈다. 조이스는 알라코끄 판화를 에블린에게 친숙한 집안 배경에 두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보아 온 에블린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 종교적 순종도 그녀의 수동성을 강화시켰음을 암시한다.

사실 조이스는 작품의 첫 부분에서부터 에블린의 수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블린은 “창가에 앉아 저녁이 한길을 엄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29)고 묘사되며

뒤이어 “머리를 창 의 커튼에 기대고 있”(29)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블린은 활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보다 어딘가에 기대어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되면서 수동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블린의 무기력한 모습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중간 부분에서도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었지만 처녀는 유리창 휘장에 머리를 기대는 채 먼지 낀 크레톤 천 냄새를 들이마시며 창가에 눌러앉아 있다”(32)고 묘사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시간이 흐르고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지만, 그녀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변화와는 상관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나아가 박윤기는 이런 수동성이 그녀의 이름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다고 한다. 박윤기의 「『에블린』 : 자유를 향한 도피의 좌절」에 따르면, “그녀의 성은 언덕을 뜻하는 힐(Hill)인데 이 작품에서 적극적인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 단어와 대립되는 아래쪽 지방과 관련이 있다”(8). 벽 위에 걸린 사진 속 신부는 현재 아래쪽 지방인 호주의 멜버른에 있고, 프랭크는 남미를 다녀온 적이 있으며 지금은 에블린에게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 일깨워준다. 또 이탈리아에서 온 오르간 연주자의 음악으로부터 에블린은 음악적인 감성이 자극 되어 탈출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녀는 언덕이라는 이름처럼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적극성과는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의 수동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소심한 성격이다. 떠나려는 결심을 하고 난 뒤 바라본 집에서 낮익은 세간들을 보며 그녀는 “꿈에도 헤어질 줄 몰랐던 이 정든 물건들을 어찌면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30)라고 생각하고 “어떤 작자와 달아나 버렸다는 것을 가게 사람들이 알면 처녀를 두고 뭐라고 할까?”(30)라며 걱정하는 부분에서도 작은 것에 미련을 갖고 신경을 쓰는 그녀의 소심함이 엿보인다. 이러한 소심함이 그녀의 수동성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에블린은 수동적인 인물로 아일랜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의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더블린의 전반적인 마비상태에서 예외가 아니며 자유에 대한 꿈을 꾸면서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부족한 연약한 여자

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 대한 걱정과 책임인데, 그녀가 가진 수동성은 그것들에 얽매이는데 일조한다. 윤종국은 에블린의 마지막 모습이 “무기력과 용기의 결핍으로 자기의 삶을 쟁취하지 못하고 마비의 환경에 희생되고 마는 아일랜드의 모든 사람이 겪는 인습과 전통의 굴레를 상징적으로 대변 한다”(103)고 말한다. 즉, 조이스가 묘사한 에블린의 모습이 비단 에블린이라는 한 인물에만 국한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묘사된 여성들은 가톨릭의 영향으로 인하여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와 당시 가부장 사회가 요구했던 “집안의 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안정숙 86)을 강요받는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억압에 순응하고 산다. 에블린은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정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녀를 억압하는 아버지와 가부장적인 관념, 그리고 수동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에블린의 삶에 더 이상 큰 변화가 없고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에블린의 미래 모습은 「진흙」의 마리아의 삶의 모습과 연결 될 수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인물들인데, 마리아는 특히 그런 인물이다. 그녀는 노처녀로 혼자 살고 있고, 가난하며 아주 작은 몸집에 코도 길고 턱도 긴 마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서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을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녀의 주위사람들은 마리아를 성격 좋은 여자로 인식한다. 주위사람들은 그녀를 좋게 생각하지만 작품에서 보여진 그녀의 일상은 만족할 만한 일상은 아니다. 마리아는 늙었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며 살고 그녀에겐 핏줄이 섞인 가족이라고는 없다. 그녀는 온실에서 화초를 기르면서 돌보는 것을 좋아했고, 오는 손님들에게 화초를 꺾어주는 것이 자랑거리라 생각하며 굉장히 소박한 것들에 대해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마리아는 소박한 인물로 보여 지지만 내면으로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리시 플레밍(Lizzie Fleming)은 매년 열리는 만성절 전야 행사에서 마

리아가 결혼을 의미하는 반지를 잡을 것이라고 농담을 한다. 그러한 농담에 “마리아는 웃으면서 반지고 남자고 다 필요 없다고 말을 하지만 웃을 때 녹회색 눈은 실망 어린 수줍음으로 반짝였고 코끝은 턱 끝에 닿으려 했다”(97)는 반응을 보인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매년 행사 때마다 같은 농담으로 그녀를 놀리는데 마리아는 그 농담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웃음을 통해 그녀의 숨겨둔 욕망을 보여준다. “마리아가 자신의 생명력의 충동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거부하지만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전은경 32). 즉, 마리아는 결혼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결혼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인물이다.

같은 장면 속에서 마리아는 둔하고 무지한 인물로도 그려진다. 리시 플레밍이 마리아가 반드시 반지를 집을 것이라고 말을 하자 진저 무니(Ginger Mooney)가 머그잔을 치켜들고 마리아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건배를 제안한다. 그러자 “마리아는 코끝이 턱 끝에 닿도록 그리고 그 작은 몸이 흔들리다시피 할 만큼 다시 웃어댄다”(97). 마리아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나이 들고 가난한 인물이기에 어느 누구도 청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저 웃어넘긴다. 그녀는 웃음을 통해 앞서 이야기 한 숨겨둔 욕망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한다.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로 묘사되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조용하고 소심하기도 하며 분노를 터뜨리거나 위기 상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지 않고 온화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마리아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고 가정적 이면서도 다른 이를 더 배려하면서 정작 자신의 욕망을 숨긴 채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녀의 숨겨온 욕망들은 작품 속에서 하나씩 드러난다. 마리아는 조와 알피 형제를 키웠고, 조는 “엄마는 엄마지만 진짜 어머니는 마리아야”(96)라고 말할 정도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생각한다. 마리아는 자신이 두 형제를 낳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하였고, 이를 통해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고 싶었던 그녀의 숨겨진 욕망이 보여 진다. 마리아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

고자 하는 것은 그녀가 결혼에 대한 욕망을 보인 것보다도 일맥상통한다. 김상효는 「『더블린 사람들』: 남성. 가부장중심주의와 그 해체」에서 “그녀가 결혼하고 난 뒤, 순종하는 아내와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는 가부장중심사회에서 여성다운 여성의 전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16)라고 주장한다. 마리아는 스스로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의 인물로 살기를 원한다.

마리아의 결혼에 대한 욕망은 조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위한 케이크를 고르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그녀는 케이크를 고르던 중 맵시 좋게 차려입은 판매대의 젊은 여자로부터 사려는 게 결혼 케이크냐는 질문을 받는다. 마리아는 그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젊은 여자에게 그 말을 인정하는 듯이 미소를 짓는다. 젊은 여자가 마리아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케이크를 고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짜증난 눈치를 보이며 빈정거린 것이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녀가 자신에게 보이는 호의라고 받아들이며 웃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결혼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혼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 보인다.

마리아는 타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하고 미소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를 통해 마리아가 자기주장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자기 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은경은 “마리아가 자신의 기질의 한계와 사회적 입지의 취약성을 직감적으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억압에 대하여 대항하기보다는 피해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35) 라고 말한다.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고 저항한다면 사회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것에 수긍하고 대답을 피하는 행동을 취한다.

마리아는 케이크를 사서 전차를 타고 조의 집으로 간다. 전차 안에서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한 회색빛 콧수염의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기분으로 조의 집에 도착한다. 모두가 그녀를 정답게 맞이했고, 아이들은 케이크를 찾지만 케이크는 없었고, 도넬리 부인(Mrs Donnelly)의 말에 마리아는 케이크를 전차에 두고 내렸음을 깨닫는다. 아이들은 실망하고 마리아도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다시 집안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해지고 만성절 전야에 하는 운명을 점치는 게임을 한다.

사람들이 웃고 농담하며 마리아를 식탁으로 데려갔고, 마리아는 하라는 대로 공중에 손을 쭉 뻗었다. 마리아는 하라는 대로 공중에 손을 쭉 뻗었다. 마리아는 손을 공중에서 이리저리 휘젓다가 받침 접시 하나에 손을 내렸다. 마리아는 손가락에 웬 물컹물컹하고 축축한 물질이 닿는 것을 느꼈는데 무슨 말을 하거나 자신의 눈가리개를 벗겨 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놀랐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윽고 북적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들렸다. 누군가가 정원에 관해 무슨 말을 했고, 마침내 도넬리 부인은 옆집 처녀에게 매우 화난 소리를 퍼붓고 나서 그 판은 무효니 당장에 그걸 치우라고 일렀다. 마리아는 앞 판이 잘못 뒀음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해 본 결과 이번에는 기도 책을 집었다.

They led her up to the table amid laughing and joking and she put her hand out in the air as she was told to do. She moved her hand about here and there in the air and descended on one of the saucers. She felt a soft wet substance with her fingers and was surprised that nobody spoke or took off her bandage. There was a pause for a few seconds; and then a great deal of scuffling and whispering. Somebody said something about the garden, and at last Mrs Donnelly said something very cross to one of the next-door girls and told her to throw it out at once: that was no play. Maria understood that it was wrong that time and so she had to do it over again: and this time she got the prayer-book. (101)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이끌려 점을 치는 놀이를 하면서 잡은 것은 바로 진흙이었다. 진흙의 의미는 죽음인데 그녀가 진흙을 잡자 아무도 그녀의 눈가리개를 벗겨 주지 않는다. 그리고 침묵이 흐르더니 이윽고 북적대는 소리와 함께 도넬리 부인이 옆집 처녀에게 화난 소리를 퍼붓는다. 코너(Steven Connor)는 마리아가 진흙을 집게 된 것이 그녀를 놀리기 위해 아이들이 벌인 “잔인한 계략” 일 것이라고 주

장했다(전은경 36 재인용). 이처럼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조차 놀림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위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마리아는 다시 한 번 물건을 집는데 그 때는 기도 책을 집는다. 기도 책이라 함은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데, 진흙을 집어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고, 또 이어 집은 것이 기도 책이라는 것에서 마리아는 그녀가 꿈꾸는 결혼과 사랑과는 전혀 반대의 운명을 타고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리아는 놀이가 끝난 후 조의 부탁으로 「꿈속에서 산 집」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 그녀는 2절을 부르지 않고, 1절을 반복해서 부르게 된다.

내가 꿈속에서 산 집은 대리석 홀이라네.
 하인과 노예가 옆에서 시중들고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 모두
 나를 희망과 자랑으로 삼았다네.
 나는 셀 수도 없는 재산에
 드높은 조상의 명망을 이어받았네.
 그러나 꿈속에서 제일 기뻐던 일은
 그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해 준 것이라네

I dreamt that I dwelt in marble halls
 With vassals and serfs at my side
 And of all who assembled within those walls
 That I was the hope and the pride.
 I had riches too great to count, could boast
 Of a high ancestral name,
 But I also dreamt, which pleased me most,
 That you loved me still the same. (102)

이 노래 속에 나타난 대리석 궁전, 하인, 시중 그리고 많은 재산은 마리아와는 거

리가 먼 것들이 분명하다. 마리아는 노래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욕망 외에 또 다른 자신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1절만을 반복하고 2절을 빠뜨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2절의 내용은 옛날 구혼자가 변치 않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이다. 마리아는 결혼에 대한 욕망을 행동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냈지만, 작품의 끝 부분에서는 결혼의 내용을 담은 2절을 빠뜨리고 부르지 않는다. 이는 마리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꿈을 좌절로 매듭짓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리아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며 그것을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생각에 따라가는 순종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와 가부장제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상인 집안의 천사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마리아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키운 두 형제는 친모를 두고도 노처녀인 마리아를 “진짜 어머니”로 표현함으로써 그녀에게 어머니로서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마리아는 스스로의 의지와는 반대로 외부 환경에 의해 독신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제한받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더블린 사회의 독신녀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점을 친 결과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성이 부족한 인물이다. 마리아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소망했지만 의지 부족으로 가정을 위한 희생을 받아들인 에블린과도 비슷하며, 에블린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

마리아와 에블린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보다도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고 그들의 수동적인 성격과 주체성 부족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운명인 듯 받아들인다. 두 여성은 결혼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이스는 두 작품을 통해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여성들을 그려낸다. 그는 두 인물의 행복하지 않은 삶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성과 주체성을 가져야 함을 여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Ⅲ. 좌절에 부딪힌 여성들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한 에블린과 마리아는 제임스가 다룬 여성의 유형들 중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길을 가지 못한 채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여성들이었다. 이제는 조이스가 그린 다양한 여성 유형 중 에블린과 마리아가 꿈꾸었던 결혼을 하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는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그들은 바로 「하숙집」의 무니 부인(Mrs Mooney)과 「어머니」의 커니 부인(Mrs Kearney)이다. 이 두 여성들에 대한 평가는 “딸들을 이용해 물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드는 속물,” “탐욕스런 기질”(박윤기, 「어머니들의」 38 재인용)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이스가 아일랜드 사회의 틀에 박힌 관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삶에 동정을 보낸다”(박윤기, 「어머니들의」 38 재인용)는 이야기도 있다. 무니 부인과 커니 부인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무니 부인의 경우 알콜 중독자 남편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집안을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감을 가진 “완강한 여성”(Fairhall 82)이며, 커니 부인은 긍정적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남성 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여성이다.

무니 부인은 “매사 알아서 척척해내는 다부진 여자”(56)이다. 그녀는 푸줏간을 운영했던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무니 씨(Mr Mooney)와 결혼하여 따로 푸줏간을 차리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죽고 난 뒤 무니 씨는 술을 자주 마셨으며 돈을 마구 쓰며 심지어는 상한 고기까지 가져다 두며 장사를 망치는 일만 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만을 보여준다. 무니 부인은 그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하는 책임을 갖는다. 무니 부인은 “몸집이 위압적으로 큰 여자”(56)로, 앞서 이야기한 여성들에 비해 더욱 다부지고 영악하며 야무진 모습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된다.

무니 부인은 신부를 찾아가 남편과의 별거와 양육권을 얻어낸다. 그리고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 그녀에게는 아들인 잭 무니(Jack Mooney)와

딸 폴리 무니(Polly Mooney)가 있는데, 잭 무니는 주먹도 잘 쓰고 망나니 기질이 있는 인물이며 폴리 무니는 날씬한 열 아홉 살의 처녀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면 회색 바탕에 푸른빛이 감도는 눈을 위로 치뜨는 버릇이 있어서 마치 심술궂은 어린 숙녀처럼 보였다” (57). 폴리는 타이피스트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무니 부인의 부름으로 하숙집에서 집안일을 하게 된다.

무니 부인은 폴리의 발랄한 성격을 이용해서 하숙집에 머무는 총각들과 어울리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딸의 몸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포주노릇을 했다”(박윤기, 「어머니들의」 39 재인용)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녀가 딸을 불러들인 것은 딸의 결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딸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모성애로부터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침내 무니부인은 폴리와 어느 한 남성 사이에서 이상한 낚새를 눈치 채고 두 사람에게 예의주시 하면서 시치미를 떼고 지켜본다.

폴리는 자기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알았으나, 그런데도 어머니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속셈을 헤아리지 못할 바도 아니었다. 모녀가 아예 내놓고 모의를 하지도 않았고 터놓고 양해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하숙집 사람들 사이에 그 염문에 대한 얘기가 나돌기 시작해도 무니 부인은 여전히 수수방관 이었다. 폴리는 태도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총각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무니 부인이 끼어들었다. 도덕적인 문제를 식칼로 고기 자르듯 다루는 부인이 드디어 이번 일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Polly knew that she was being watched, but still her mother's persistent silence could not be misunderstood. There had been no open complicity between mother and daughter, no open understanding but, though people in the house began to talk of the affair, still Mrs Mooney did not intervene. Polly began to grow a little strange in her manner and the young man was evidently perturbed.

At last, when she judged it to be the right moment, Mrs Mooney intervened. She dealt with moral problems as a cleaver deals with meat: and in this case she had made up her mind. (58)

무니 부인과 폴리는 서로의 계획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환상의 팀워크를 보이며 계획을 완성시킬 준비를 한다. 무니 부인과 폴리의 모습이 먹이를 노리는 동물들처럼 잔인 하게 비취질 수도 있으나, 여성들의 경제적 기회가 적었던 당시 아일랜드 사회를 고려해 본다면 그녀들을 결혼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하는 영리한 전략가들로 볼 수도 있다. 박윤기는 “당시의 사회상에서 폴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란 형편없는 보수를 받고 타이피스트가 되느냐 혹은 결혼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바라느냐 하는 것이다”(「어머니들의」 41-2)라 주장한다. 폴리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당시 아일랜드에서 보편화된 사회상”(Walzl 34)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폴리의 결정이 단순히 속물적인 여성이 내린 결론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밥 도런(Bob Doran)처럼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성과의 결혼이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던 것이다.

무니 부인은 에블린이나 마리아와는 달리 자신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무니 부인이 딸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결단을 내린 이유는 폴리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하숙집」의 무니 부인과 폴리를 통해 에블린과 마리아와는 달리 진취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고자 한 여성을 그려낸다.

남자야 아무래도 좋다. 실컷 재미를 보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 갈길을 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처녀는 그 뒷감당을 해야 한다. 개중에는 돈 몇 푼 받고 이런 일을 서둘러 수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그런 사례들을 부인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마음은 없었다. 부인 입장에서 딸년의 실추된 명예를 보상해 줄 방책이란 오직 한 가지, 다름 아닌 결혼 뿐이었다.

It is all very well for the man: he can go his ways as if nothing had happened, having had his moment of pleasure, but the girl has to bear the brunt. Some mothers would be content to patch up such an affair for a sum of money; she had known cases of it. But she would not do so. For only one reparation could make up for the loss of her daughter's honour: marriage.(56-60)

무니 부인은 남성들이 재미만 보고 여성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돈 몇 푼 받고 만족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딸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딸의 미래와 행복을 위한 모성애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도련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두 여성의 계획의 희생자로 보인다. 박윤기가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어머니"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말하듯이, 그는 “마치 양이나 소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벗어나지는 못”(106)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연약한 양과 소와 같이 힘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도련은 폴리와 있었던 일을 감추려고 하다가 그 일이 밝혀지자 자신의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먼저 신경 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이용한 폴리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폴리의 임신이 자신의 탓이 아닌 폴리의 유혹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비겁한 인물이기도 하다.

조이스는 작품 속 인물들을 다른 작품에 연속해서 등장시키는데, 도련을 『율리시즈』(*Ulysses*)에 다시 등장시켜 술주정뱅이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조이스에 의해서 도련이란 인물은 처음부터 타락할 소지를 안고 있는 더블린 사회의 무능력한 남성의 전형 중 하나로 그려진다. 도련도 “무니 부인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기생적인 존재로 전락할 운명을 지닌 듯”(박윤기, 「제임스」 31) 보이는 인물이고 걸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무능력한 더블린의 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폴리 역시 어머니 무니 부인처럼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무니 부인은 폴리를 시집보내려는 계획을 성공시킨 여성으로 비추어지지만 조이스는 그녀의 계획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음을 암시해 놓는다. 폴리는 첫 번째 장의 에블린과 닮아있다. 폴리와 에블린은 19살의 처녀이고 결혼을 바라며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여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어머니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 다른 점이라면 에블린은 자신의 어머니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을 위한 희생의 삶을 선택하고, 폴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모성애를 발휘한 어머니의 활약으로 결혼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조이스의 후속 작품 속 도련의 모습을 통해 폴리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폴리의 삶도 에블린의 삶과 다를 바 없이 끝나게 되며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조건이 행복과는 바로 연관되지 않아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조이스의 여성들이 행복과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들 때문이다. 에블린은 아버지로 인해 마리아는 조와 알피 형제로 인해 그리고 폴리는 도련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찾지 못한다. 조이스는 여성들이 남성 중심 사회에 살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깨닫고 스스로 마비된 틀 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앞에서 본 에블린과 마리아는 개인적인 특성과 어려운 시대적 상황, 그리고 남성들을 책임져야 함으로 인해 행복과는 먼 삶을 산다. 무니 부인은 딸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성사시키지만 폴리의 결혼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아 무니 부인 또한 자신의 계획에 실패를 하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조이스가 그려낸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주어진 압박은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던 간에 그 당시에는 피할 수 없는 짐이며 그리하여 그녀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

남성들로 인해 계획에 실패를 맞는 여성이 또 한명이 있다. 바로 「어머니」의 커니 부인이다. 커니 부인도 무니 부인처럼 자신의 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커니 부인도 무니 부인과 마찬가지로 자식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던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로 이해할 수 있다.

커니 부인은 사회적으로 활약을 하는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이다. 「어머니」는 가정이 중심이 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성과 남

성사이의 이야기이다. 김상효는 「『더블린 사람들』: 남성. 가부장중심주의와 그 해체」에서 아일랜드 전역에 뿌리박힌 남성우월주의가 “더블린의 사회, 문화적인 분야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다”(7)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커니 부인과 갈등을 일으키는 아일랜드 문화협회의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홀러헨 씨(Mr Holohan)가 연주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너저분한 서류를 들고 다니며 다리 한쪽을 절면서 분주하게 다니지만, 연주회에 관한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은 커니 부인이다. 조이스는 신체 한 부분이 불편한 홀러헨 씨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커니 부인이 대신 홀러헨 씨의 일을 해주는 모습을 통해 홀러헨 씨를 무능력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커니 부인은 고급 수녀원에서 교육받았고 불어와 음악도 배운 여성이다. 그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자신에게 맞는 남성이 결혼하자고 하길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구두장과 결혼을 하여 커니 부인이 되었다. 커니 씨(Mr Kearney)는 절도도 있고 검소했으며 경건한 사람이고 모범적인 아버지다. 커니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잘했고, “뭔가 크고 든든하고 확고한 존재로서 중앙우체국을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남편을 존중했다”(139). 커니 부인은 무니 부인과는 달리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다. 커니 부인이 딸을 이용하여 자신의 또 다른 이득이나 물질을 취하려는 부정적인 인물로 종종 평가가 되어왔지만, 구두장과 결혼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가 물질만을 탐하는 인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커니 부인은 딸 캐슬린(Kathleen)을 잘 교육시켰고, “사람들은 캐슬린이 음악에 아주 뛰어나며 착한 처녀일 뿐 아니라 그녀의 이름 덕분에 언어 운동 신봉자”(135)라고도 생각했다. 커니 부인은 사람들의 입에 캐슬린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 만족한다. 마침 홀러헨 씨가 캐슬린을 에인션트 콘서트(Antient Concert Rooms)에 반주자로 내보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자 커니 부인은 놀라지 않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커니 부인은 딸의 미래를 위해 잘 교육시키고 아일랜드 사회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이름도 아일랜드적인 이름을 지었다. 그녀 나

름대로 딸의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왔기에 아일랜드 문화협회에서 반주자로 제안을 해 온 것은 그녀가 계획한 일이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커니 부인은 케슬린이 연주회의 반주자로 나감으로써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커니 부인은 홀러헨 씨가 준비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연주회를 위한 준비를 한다. 그러나 연주회가 시작되고 보니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 연주회 첫 날의 출연진들은 싼 가격에 데리고 온 음악가들이고 관객도 별로 없다. 커니 부인은 홀러헨 씨에게 피츠패트릭 씨(Mr Fitzpatrick)를 소개 받는다. 피츠패트릭 씨는 체구가 작고 하얀 얼굴에 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남성이다. 그녀는 불만족스러운 연주회 상황에 홀러헨 씨에게 어찌 된 영문인지를 묻지만, 홀러헨 씨는 위원회가 네 차례의 연주회를 준비하느라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며 마지막 연주회 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이라는 애매한 대답만 한다. 그리고 피츠패트릭 씨 또한 연주회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는 멍청한 웃음을 보인다. 조이스는 홀러헨 씨와 피츠패트릭 씨의 모습을 통해 “독립협회 위원들의 무능함”(박윤기, 「어머니들의」 45) 즉, 남성들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날의 연주회도 첫 번째 연주회와 마찬가지로 형편없이 진행된다. 공짜표가 난무하고, 청중들은 연주회를 비공식적인 총연습 정도로 알고 있는 듯 한 태도로 관람한다. 커니 부인은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울화통이 터졌고, 4회 공연이라는 계약 내용과는 달리 금요일 공연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식에 홀러헨 씨에게 따진다. 홀러헨 씨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피츠패트릭 씨에게 책임을 넘기지만 피츠패트릭 씨도 자신의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듯이 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을 한다. 커니 부인은 그의 태도에 화가 나서 “그런데 그 위원회인지 나발인지가 도대체 뭐죠?”(139)라며 따지고 싶었지만 여성으로서 정숙한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에 입을 꼭 다문다. 아일랜드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특권유지의 일환으로써 여성들에게는 레이디로서의 여성다움을 강요했다”(박윤기, 「어머니들의」 45). 커니 부인도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었기에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못한다.

커니 부인은 토요일 대공연을 앞두고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남편이 함께 가겠다고 나서자 기뻐한다. 커니 부인은 “남편의 재능을 별로 잘 알지 못했지만 남자로서 가진 추상적인 가치는 높이 평가했”(139)으며 그의 존재 가치에 만족한다. 커니 부인은 남성 중심의 사회적 관념을 잘 이해하고 남성의 권위와 추상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인물로도 그려진다. 무니 부인이 남편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녀 혼자 모든 것을 꾸려나가기 위해 약간은 거친 여성이 되었다면, 커니 부인은 남편의 존재 가치를 만족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적 관념을 이해하는 여성으로 보여 진다. 이로써 두 여성이 남성들과 대립하는 상황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남성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동일한 아일랜드 사회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주고 그들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토요일 대공연 날, 커니 부인은 먼저 홀러헨 씨와 피츠패트릭 씨를 찾아다니고 홀러헨 씨를 만나 다시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딸의 보수가 언제 지급될 지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홀러헨 씨는 그 일은 피츠패트릭 씨의 소관이며 자신은 알 바 아니라며 발뺌을 한다. 커니 부인은 홀러헨 씨의 태도에 화가 나서 결국은 이상적인 여성상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한다. 그녀는 급기야 돈을 받지 않으면 캐슬린을 연주회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캐슬린의 등장이 늦어지자 청중들은 아우성치고 피츠패트릭 씨가 놀라서 나타난다. 피츠패트릭 씨가 커니 부인에게 돈을 쥐어 주자 캐슬린은 연주회에 들어간다.

1부의 공연이 끝나고, 커니 부인의 행동을 두고 위원회 남성들은 “음악가들을 배려했어야 했다,” “보수를 주지 말라”(146)와 같은 말을 한다. 위원회 남성들은 커니 부인의 숙녀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한다. 김상효가 「『더블린 사람들』 : 남성. 가부장중심주의와 그 해체」에서 지적하듯이, “남성을 대변하는 단체인 더블린의 문화계에서 여성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재능보다는 숙녀다운 태도가 더 중요한 요인”(8)이며 그들에게 공연의 질은 중요하지 않다. 커니 부인이 위원회 남성들로부터 숙녀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비난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캐슬린의 사회적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남성들이 중요시하는 숙녀다움을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캐슬린의 친구 힐리(Healy)이다. 그녀는 헨드릭 씨(Mr Hendrick)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숙녀라는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다.

힐리가 서서 웃는 얼굴로 얘기하고 있었다. 기자는 힐 리가 예의 차리는 이유 한 가지를 짐작할 만큼 나이가 꽤 보였으나, 기질적으로는 그 기회를 이용할 만큼 젊었다. 힐리의 몸에서 풍기는 온기와 향기와 색채가 기자의 오감에 호소해 왔다. 아래에서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움직임을 보이는 가슴이 그 순간 바로 자기를 위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것, 그 웃음과 향기와 의식적인 시선이 자기에게 바치는 선물이라는 것을 의식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Miss Healy stood in front of him, talking and laughing. He was old enough to suspect one reason for her politeness but young enough in spirit to turn the moment to account. The warmth, fragrance and colour of her body appealed to his senses. He was pleasantly conscious that the bosom which he saw rise and fall slowly beneath him rose and fell at that moment for him, that laughter and fragrance and wilful glances were his tribute.(143)

이 부분에 나타난 힐리의 행동은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다움을 가지면서도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한 행동이다. 힐리는 남성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는 여성이다. 박윤기는 “힐리의 행동은 분명히 아부에 지나지 않지만, 권위를 바라는 남성들의 위신을 세워주기엔 충분한 것 이었다”(「어머니들의」 48)라고 말한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그들을 대우해 주길 바라기에 커니 부인이 자신들에게 큰 목소리를 내면서 주장을 하는 태도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성답지 못한 태도로 본 것이다.

커니 부인은 “자기가 남자이기만 했어도 감히 이런 식으로 대접할 엄두는 내지

못했을 터였다”(146)라고 생각하면서 여자이기에 남성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사실에 항의하면서 딸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합당한 보수를 요구한다.

“부인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커니 부인.” 하고 홀로헨 씨가 말했다.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커니 부인이 물었다.

“그쪽에서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부인의 얼굴에는 분노의 빛이 넘쳐 났고 마치 아무나 한 대 쥐어박을 태세였다. 부인은 말했다.

“난 내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홀러헨 씨가 말했다.

“품위를 좀 지키면 좋을 텐데요.”

“아아, 그래요?…….그런데 내 딸이 언제 보수를 받게 되는지 물었을 때 짐작은 대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I’ m surprised at you, Mrs Kearney, said Mr. Holohan. I never thought you would treat us this way.

And what way did you treat me? asked Mrs Kearney.

Her face was inundated with an angry colour and she looked as if she would attack someone with her hands.

I’ m asking for my rights, she said.

You might have some sense of decency, said Mr Holohan.

Might I, indeed? . . . And when I ask when my daughter is going to be paid I can’ t get a civil answer.(147)

홀러헨 씨는 커니 부인의 숙녀답지 못한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커니 부인은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연주회에 실망했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미루고 있는 남성들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사회적 관념의 틀을 깬 행동을 한다. 그러나 홀러헨 씨가 “저희에게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147)라고 한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녀의 행동이 비난 홀러헨 씨와 피츠 패트릭 씨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 것이다. “남성들은 개인에 대한 공격 또한 남성들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게”(Leonard 144) 되고 커니 부인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행동은 남성들이 속한 위원회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힐리 양의 태도가 사회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태도이며, 커니 부인이 초반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숙녀답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숙녀 같은 모습만이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조이스가 묘사한 더블린 여성들이 무력하고, 수동적이고,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괴물이 된다”(김미령 37 재인용)는 주장처럼 커니 부인의 행동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모두 그렇게 행동하는 부인을 괴물처럼 비난할 뿐이었다. 그녀의 행동이 비난 받을 행동은 아니지만 조이스가 그려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비난 받을 행동이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조이스는 사회적인 모순을 꼬집는다.

커니 부인은 결국 연주회를 떠나고, 그녀의 뒤를 캐슬린이 아무 말 없이 따라나선다. 커니 씨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내가 동분서주 뛰어 다니면서 자신의 딸을 위해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커니 씨는 아무것도 거들지 않으면서 이 또한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매든 버크씨(Mr O'Madden Burke)는 커니 부인이 나가자 홀러헨 씨에게 “자네 처사는 합당했어, 홀러헨”(148)이라며 그의 편을 들어준다. 프리먼스 저널(Freeman)에 논평을 쓰는 오매든 씨가 그의 행동에 동조함으로써 커니 부인의 행동은 저널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며, 아일랜드 문화협회 남성들에게 비난 받은 커니부인의 딸 캐슬린은 그녀의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 음악가로 더블린에서 성공할 수 없게 된다. 경제, 정치 등 사회 전역에서 남성 중심적 관념은 여성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중심적 요소로 나타난다. 그리고 김상효가 「『더블린 사람들』:남성. 가부장중심주의와 그 해체」에서 주장하듯이, “더욱 순수해야 할 더블린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남성 중심적 가치는 여

성들의 삶을 좌절시키고 예술적 재능을 억압하는 지배적 관념으로 제시 된다”(8).

커니 부인이 자신의 딸인 캐슬린에게 자신의 꿈을 대신 성취하도록 강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녀가 물질만을 쫓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녀가 남성들을 대신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당시 아일랜드 남성들의 무능함 때문이다. 그녀는 나름대로 숙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처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올바른 권리를 찾고자 한 것이다. 커니 부인의 계획은 결국 남성 중심적 관념에 사로잡힌 남성들로 인하여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하숙집」과 「어머니」속의 무니 부인과 커니 부인은 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 어머니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딸들의 삶이 행복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속에 그녀들에 대한 부정적 비평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두 어머니들의 행동은 자식을 생각하는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들이 꾸었던 꿈이 좌절되고 만다. 두 여성은 당시 사회의 남성 중심적 관념으로 인해 실패한 어머니가 된 것이다.

두 어머니들의 의식은 에블린이나 마리아보다 더 독립적이었고 깨어있는 편이지만 두 여성 모두 여성의 삶에 있어 남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남성들이 가진 남성 중심적 관념은 여전히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두 여성의 행동으로 남성들의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었다.

IV.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여성들

「망자」에 나타난 여성들은 각자가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여성들로 묘사가 된다. 케이트(Kate)는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줄리아(Julia)는 소프라노로 활동을 하면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제 몫을 해내는 여성들이다. 메리 제인(Mary Jane)은 왕립음악원 출신으로 상류층 자제들을 제자로 둔 성공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망자」에 나타난 여성들은 에블린, 마리아, 무니 부인과는 달리 교육을 잘 받고 지식을 갖춘 여성들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의 배경인 파티장면은 앞선 작품들의 어두운 가정환경과 부족함이 느껴지는 콘서트 현장들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밝고 진취적으로 묘사된다. 등장인물들도 밝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인물들이다. 이야기의 중심인물로 나타나는 게이브리엘(Gabriel)은 남성 주인공으로서 지식과 학식을 갖추고 있는 직업적으로도 번듯한 남성이다. 그는 앞서 등장했던 남성인물들인 에블린의 아버지라든지 무니 부인의 남편 그리고 문화협회 남성들과는 달리 아내에게도 굉장히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과는 다른 남성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게이브리엘은 겉으로는 다른 남성 인물들과 다르게 묘사되지만, 그의 이면에는 앞에서 등장한 남성들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모습을 갖춘 전형적인 더블린의 남자임을 볼 수 있다. 「망자」에서는 전형적인 더블린 남자의 모습을 가진 게이브리엘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세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릴리(Lily), 아이버스(Ivors), 그리고 그레타(Gretta)이다. 게이브리엘은 세 여성들을 통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으로 얻고 충격을 받는다. 먼저 게이브리엘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게이브리엘은 아내인 그레타(Gretta)와 연례무도회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는다. 늦게 도착한 그들에게 “이모님들이 안 오는 줄 알고 있다”(176)는 릴리(Lily)의 말에 “이모님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옷 입을 데 장장 세 시간이나 걸린다는 걸 잊고 계셔”(176)라고 말하면서 그레타를 핑계 삼아 가볍게 이야기

한다. 이 부분에서 게이브리엘은 굉장히 자상하고 부인을 챙겨주는 남성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남성의 제재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김문숙 30)로 보는 “그의 무의식”(김문숙 30)이 나타난다. 그는 아내의 옷을 입는 습관 하나까지도 챙기는 남편 같이 보여 지지만, 꾸밈에 대한 여성의 욕구를 비꼬면서 아내를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열등한 존재이자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남성의 우월성을 지닌 인물이다.

게이브리엘이 여성을 어린애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릴리와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애, 릴리, 너 아직 학교 다니니?” 릴리가 대답했다.

“어머, 아니요. 학교 졸업한 지 벌써 일 년도 더 된걸요.”

-Tell me, Lily, he said in a friendly tone, do you still go to school?

-O no sir she answered. I’ m done schooling this year and more.(177)

졸업한지 일 년도 더 넘은 릴리에게 아직도 학생임을 묻는 단순한 질문 속에서도 여성을 아직 어린애 취급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게이브리엘이 그레타와 릴리를 대하는 모습에서 여성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애로 생각하는 그의 무의식을 볼 수 있다.

게이브리엘은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연설문 중 자신이 준비한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 시구들을 청중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망설이고, “그네들의 문화수준이 자신의 문화 수준과는 다르다”(179)는 생각을 보여준다.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은 우위에 있으며, 연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임을 비추어 봤을 때, 남성우월주의와 더불어 개인 우월주의도 가진 인물이다.

그레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모들에게 하면서 웃어대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약간 화를 내는 모습 속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침범하는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

하며 화를 내는 소심한 모습 또한 엿볼 수 있다.

게이브리얼은 자신의 나라인 아일랜드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유럽이나 영국에 대해 사대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더 데일리 익스프레스』(*The Daily Express*)지에 매주 수요일마다 문학 칼럼을 쓰면서 돈을 받는데, 그런 행동을 비난하는 아이버스의 말에 서평을 쓰는 일이 정치와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감싼다. 또한 아이버스가 여름휴가를 아일랜드 전통 언어와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아란 아일스(Aran Isles)로 오라고 하자 자신은 유럽 쪽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계속해서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아이버스에게 “난 나 자신의 나라가 진저리납니다.”(190)라는 말로 아일랜드에 애정이 없음을 나타낸다.

게이브리얼은 그레타를 대하는 태도에서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을 보여준다. 게이브리얼은 아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며 그녀를 자신이 보호해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은 굉장히 용감한 대상으로 인식한다. 게이브리얼은 땅이 질기만 하면 골로시를 신이라고 아내에게 강요하면서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려 한다.

그레타는 작품 속에서 지혜로우면서도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묘사되는데, 게이브리얼은 그녀를 항상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녀의 존재는 모습자체로 그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유물에 불과하다. 김상효가 「『더블린 사람들』: 남성. 가부장중심주의와 그 해체」에서 주장하듯이, 게이브리얼이 스스로를 “예술창조의 주체”(6)라고 설정하였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화가라면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아내 모습을 그려 보련만”(211)이라며 그녀를 자신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창조물로 본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 우월주의 성향이 보여진다.

앞으로는 남성 우월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소심하고 자신의 국가에 대해 애정이 없는 게이브리얼이 세 여성과의 대화 속에서 어떠한 충격을 받고 그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릴리와는 첫 대화 속에서 게이브리얼은 릴리에게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건넨다.

“아, 그렇다면, 조만간 좋은 날 결혼식장에서 신랑 총각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겠구나, 응?” 릴리는 어깨 너머로 게이브리얼을 힐끗 돌아보고 매우 분개하는 어조로 말했다.

“요즘 총각들은 말만 번드르르하고 여자한테서 뭔가 우려낼 생각만 하는걸요.” 게이브리얼은 뭔가 잘못된 느낌이라도 드는 듯 얼굴을 붉히고는 릴리를 쳐다보지 않은 채 골로시를 팽개쳐 벗고 에나멜 구두를 머플러로 세차게 털탈 털었다.

-O, then, said Gabriel gaily, I suppose we' ll be going to your wedding one of these fine days with your young man, eh?

The girl glanced back at him over her shoulder and said with great bitterbess:

-The men that is now is only all palaver and what they can get out of you.

Gabriel coloured as if he felt he had made a mistake and, without looking at her, kicked off his goloshes and flicked actively with his muffler at his patent-leather shoes.(178)

이 부분은 여성에게 결혼은 자연스럽게 밟아가야 할 단계이며 여성은 결혼을 통해 남성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고,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게이브리얼의 의식이 나타난다. 게이브리얼은 릴리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릴리가 분개하는 어조로 “요즘 총각들은 말만 번드르르 하고 여자한테서 뭔가 우려낼 생각만 한다”(178)라며 말하자 게이브리얼은 얼굴을 붉히면서 당황한다. 그는 직업이나 계급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으로 하녀인 여성에게 해주는 삶에 대한 조언이자, 자신의 계급적인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대수롭지 않은 질문을 한 것이지만, 릴리는 “예상치 못한 말대꾸”(김문숙 31)로 그를 당황하게 했다. 게이브리얼은 다른 사람들과의 구분을 통해서 자신의 계급이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

다. 게이브리얼은 “요즘 총각들”의 그룹 안에 자신을 함께 묶어버리는 듯한 릴리의 말대꾸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릴리는 게이브리얼의 계급적인 정체성을 위협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게이브리얼은 릴리의 말대꾸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릴리가 별안간 분개한 듯이 되쫘 말대꾸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178)라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또한 자신의 불안한 모습을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쓴 금테 안경과 릴리에게 준 동전 한 개 이다. 그가 쓰고 있는 금테 안경은 릴리의 말대꾸로 상처받은 불안한 눈동자를 가려주고 금테 자체가 계급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물질적 상징물이다. 뒤이어 게이브리얼이 릴리에게 애원하듯 주는 동전 한 개는 그녀보다 물질적으로 나은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월한 위치를 알리고 싶은 욕망을 보여준다. 릴리의 말대꾸는 게이브리얼의 무의식속 남성 우월주의를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한다.

게이브리얼의 자아를 흔드는 인물은 또 나타난다. 바로 아이버스 양이다. 그녀는 태도가 솔직하고 수다스러운 젊은 여자로 당시 여성들이 즐겨 입는 옷을 입지 않고 옷깃 앞에 아일랜드의 문장과 명구가 새겨진 브로치를 달고 있는 민족주의 여성이다. 그녀는 불쑥 게이브리얼에게 따질 일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G.C.가 누구죠?”

게이브리얼이 낮을 붉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처럼 막 이마를 찌푸리려는데, 여자가 투명스레 말했다.

“어머, 시치미 떼시기는! 선생님이 『더 데일리 익스프레스』지에 기고하시는 걸 알아냈는데. 어때요,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게이브리얼은 눈을 깜박이고 웃음을 띠려 애쓰며 물었다.

“내가 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죠?”

“저기, 저는 선생님이 부끄럽거든요.” 아이버스가 거침없이 말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신문에 글을 쓰시다니 말이에요. 선생님이 친영과인 줄은 몰랐어요.”

—Who is G.C.? answered Miss Ivors, turning her eyes upon him.

Gabriel coloured and was about to knit his brows, as if he did not understand, when she said bluntly:

—O, innocent Amy! I have found out that you write for The Daily Express. Now, aren't you ashamed of yourself?

—Why should I be ashamed of my self? asked Gabriel, blinking his eyes and trying to smile.

—Well, I'm ashamed of you, said Miss Ivors frankly.

To say you'd write for a rag like that. I didn't think you were a West Briton. (188)

아이버스는 게이브리얼에게 거침없이 말을 하며 그가 감추고자 했던 부분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녀는 데일리 익스프레스지에 글을 쓰는 게이브리얼을 영국에 호의적인 인물로 보고 “친영파”(188)라며 비꼰다. 그녀의 지적에 “그렇다고 해서 친영파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188)이며, “문학은 정치를 초월하는 것”(188)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태도에서 “식민지적 자아의 흔적을 문화적 우월감으로 감추려는 의도”(김문숙 37)를 볼 수 있다. 그는 무의식속에서 식민지인 자신의 나라보다 영국을 동경하고 있다. 자신의 나라는 식민지일지라도 자신은 보수진영의 신문에 서평을 쓰면서 “제국주의와의 무의식적인 공모”(민태운, 「탈식민적」 87 재인용)를 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부정을 하고 있다.

아이버스는 여성적인 옷을 입지 않고 브로치를 통해서 자신이 민족주의자라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민태운이 「『더블린 사람들』에서 보이는 일상 속의 전쟁」에서 말한 것처럼 그녀는 “좀 더 공격적이고 남성적인 면”(35)을 보이는 인물로 아일랜드 남성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다. 커니 부인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주변 남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게이브리얼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며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변화된 사회상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이버스는 게이브리엘에게 여름 휴가를 “아란 아일랜드” (Aran Isles)로 오라고 제안하지만 그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로 가기로 했다면서 거절을 한다. 그의 말에 아이버스는 자기 자신의 언어 그리고 자신의 땅을 먼저 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지는데 게이브리엘은 또 당황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이마까지 빨개질 정도로 난처해한다.

게이브리엘은 아일랜드 서부지역의 “문명화되지 않은 모습”(박윤기, 「여성주의」 289)을 좋아하지 않았다. 서부지역 출신인 그레타를 처음 자신의 어머니에게 데려왔을 때, 촌티가 난다면서 그레타를 무시했던 자신의 어머니의 “속물주의”(박윤기, 「여성주의」 289)가 그의 내면에도 숨어있었던 것이다. 아이버스는 그가 가진 속물주의의 모습을 비난하면서 보수진영의 신문사에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대주의 성향을 비난한다. 게이브리엘은 그녀의 비난으로 인해 무의식속에 감추고자 했던 부분을 들리게 되면서 분노를 느끼지만, 나아가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아 중심적이었던 게이브리엘은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다운 여성상에서 벗어난 두 여성, 릴리와 아이버스를 만나면서 자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결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의 아내 그레타 덕분이다. 그녀는 게이브리엘이 가진 자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게이브리엘은 굉장히 다정하고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성으로 비추어 지지만 또 그의 모습 속에서 가부장적인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다. 게이브리엘은 아이버스와의 실랑이 후에 그레타로부터 무슨 일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서부로 여행을 가보라는 권유에 거절했다고 답을 한다. 그레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고향인 서부의 골웨이를 꼭 다시 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지만, 게이브리엘은 단번에 거절한다. 그런 그의 태도에서 자신의 허락 하에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적인 모습과 아내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이버스를 한 방 먹일 생각에 차갑게 이야기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레타는 게이브리엘의 냉정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웃음으로 넘기는 굉장

히 현명하고 사랑스러우며 순종적인 모습을 가진 여성이다.

파티에 참여했던 몇몇 사람들이 떠나고, 게이브리엘은 난간에 기대어 노래를 듣고 있던 한 여성의 모습에 빠져 그녀를 그윽하게 쳐다보고 그녀에게서 우아함과 신비를 느낀다. 게이브리엘은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되는 창조물로만 여겨왔던 그레타의 모습이 그 자체로 신비스럽고 우아하게 비추어 지는 것이 게이브리엘은 낯설다.

그레타는 바텔 다시씨(Mr Bartell D' Arcy)의 노래가 끝나자 노래제목을 물어보고 그것은 바로 “오림의 아가씨”(Lass of Aughrim)다. 제목을 들은 그레타는 다시 되풀이해 제목을 이야기하고 이후로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힌 듯 묘사된다. 그레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 자신의 일을 떠올린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가던 중, 게이브리엘은 그레타를 보면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 행복했고 아내의 기품과 요조숙녀다운 거동이 자랑스러웠다. 게이브리엘이 아내를 보면서 자랑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기준에 맞게 그레타가 행동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이기적 자아의 공간을 갖춘 인물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자신에게 순종적이며 자신이 바라는 아내다운 행동을 하는 그레타를 보면서 게이브리엘은 날카로운 욕정에 사로잡히고 아내를 끌어안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진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멍해 보이는 그레타의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하지만, 덜 친다면 짐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게이브리엘은 여성을 보살핌의 대상과 남성에게 허락에 의해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여긴다. 그런데 게이브리엘은 자신의 욕망에 당연히 순응해야하는 그녀가 자진해서 다가오지 않자 당황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돌아온 대답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 그녀는 「오림의 아가씨」를 생각하고 있었고, 더불어 그 노래를 잘 불러주었던 마이클 퓨리(Michael Furey)라는 다른 소년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다. 자신이 그레타에게 욕정을 품고 사랑하는 순간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레타는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던 열일곱 살에 죽은 가스공장에 일하던 소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사람됨에 대한 부끄러운 자의식이 엄습해 왔다. 자신이 이모들에게 뜯다니 노릇이나 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속물들에게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자신의 얼토당토않은 욕정을 그럴싸한 것으로 치부하며 안절부절못한 채 호의나 베풀려고 드는 감상주의자로, 그리고 거울 속으로 흘깃 본 처량하고 한심한 작자로 스스로의 눈에 비쳐졌다.

A shameful consciousness of his own person assailed him. He saw himself as a ludicrous figure, acting as a penny boy for his aunts, a nervous well-meaning sentimentalist, orating to vulgarians and idealizing his own clownish lusts, the pitiable fatuous fellow he had caught a glimpse of in the mirror.

게이브리얼은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자신이 창조주라면 자신의 아내는 창조물에 불과하다면서 아내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살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레타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그가 아내에 대해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게이브리얼은 스스로를 가스공장에서 일하던 소년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수치심을 느낀다. 이 장면에서 김상효는 “동시에 그는 자신이 의도했던 곳으로 아내를 이끌어 가고자 했던 노력이 정말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더블린 사람들』, 19)고 이야기 한다. 게이브리얼은 깨달음과 더불어 자신의 이기적 자아의 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는 “서쪽 여행을 떠날 때가 온 것이다”(225)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서쪽 여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태도를 바꾸게 되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다. 자신이 거부하였던 곳으로의 여행을 생각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개체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게이브리얼은 지금까지 단정지어왔던 타자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인식들을 포함한 그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변화시키고

자 한다. 이렇게 게이브리엘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그의 자아를 흔들어 놓은 릴리와 아이버스를 시작으로 순수한 사랑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면서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아를 깨버린 그레타가 있음에 가능했다. 조이스가 마지막 단편의 주인공으로 게이브리엘을 두고 그의 변화를 보여준 것은 더블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의 변화는 더블린 사람들의 사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 론

제임스 조이스는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여성혐오자라고 평가 받아왔지만, 그는 여성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여성이 사회에서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 작가임을 볼 수 있었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은 “마비의 중심지인 더블린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의 도덕사”(Walzl 31)로 구성되어 있어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의 잘 닦아놓은 거울을 통해 그들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조이스는 아일랜드 현실 속 여성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여성의 역할을 통해 남성과 사회가 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가 사실주의 기법을 통해 더블린 전체를 보여준 이유는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된 삶을 그대로 보여줘야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더블린 사람들』의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과 연관 되어 그려진다. 그들의 어머니 아내, 딸, 누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창녀가 되기도 한다. 왈즐(Walzl)은 “여성들을 사회적 그리고 가족의 관계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19세기 그 상황이야말로 아일랜드의 문화적인 압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16)이라고 하면서 조이스가 아일랜드 상황과 여성들의 상황을 잘 보여줬음에 근거를 더해준다. 예블린과 마리아는 아일랜드에 팽배했던 가부장제의 압박에 순응하고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여성다운 행동이라 믿고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무니 부인과 커니 부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성과 대립하는 양상을 그리며 겉으로는 남성 중심 사회에 순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로 그려진다. 그러나 여성이 불만을 토로하면 그들이 사는 사회 제도로 인해 오히려 비난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 작품의 여성들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로 인해 남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이끌어 내는 여성들이다. 조이스는 14개의 작품을 통해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과 그들이 남성 중심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현실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작품을 통하여 변화된 여성상을 가진 여성들을 등장시켜 남성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

여 변화를 이끌어낸다. 마지막 작품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 남성을 보여주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해야 함을 알린다.

본 논문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중에서 남성 중심 사회가 뚜렷이 드러나며 그 속에 사는 여성들의 역할이 부각된 다섯 개의 단편들을 연구하였다. 「에블린」, 「진흙」의 여성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과 「하숙집」, 「어머니」의 여성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 그리고 마지막 「망자」의 여성인물들이 가진 다른 양상들의 의식을 보여준다.

「에블린」의 에블린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과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프랭크를 만나 탈출을 꿈꾸는 인물로 의식적으로는 완전히 마비된 여성은 아니다. 에블린은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랭크를 통해 현재의 삶에서 탈출을 계획하지만, 그녀를 옹아매는 가정 그리고 어머니와의 약속으로 인해 탈출을 포기하고 결국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만다. 그녀는 의식적으로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으로 강해진 수동성으로 인해 의지와 용기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돌보는 외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다. 에블린은 자신의 미래를 당시 사회가 원하던 여성의 역할로 맞바꾸고 만다.

「진흙」의 마리아는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못한 여성으로 또한 아일랜드의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주변인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해결사로 그려지는 여성이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타인이 원하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인물로 그녀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여성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타인의 말에 어떠한 반항이나 설득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은 전혀 표현하지 않고 타인의 생각과 바람대로 따라가는 여성상을 보여주면서 늙었지만 결혼을 꿈꾸며 남성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두 작품 속 여성을 통해 조이스는 남성중심사회의 가부장제 안에서 남성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여성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룬 「하숙집」의 무니 부인은 에블린과 마리아와는 달리 완전히 수동적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의식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무니부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을 하는 여성이다. 아

일랜드 경제상황에서 여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라 판단하고 경제력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도련과 자신의 딸 폴리의 결혼을 성사시킨다. 그녀는 가부장제 사회에 길들여져 남성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까지 하는 자의식을 가진 여성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능하게 한 점에서 또 다른 여성유형을 보여준다. 그녀는 폴리의 결혼을 성사시키지만 결과적으로 조이스의 후속 작품을 통해 폴리의 결혼은 행복하지 않음을 암시하면서 딸의 행복을 바랐던 무니 부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어머니」의 커니부인도 무니부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여성상을 보여주며 무능한 남성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으로도 그려진다.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원하는 여성상을 알고 그대로 행동하고자 노력하지만 부당한 남성들의 대우에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이 원하는 숙녀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남성들에 의해 비난을 받고 자신의 딸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딸의 미래를 막는 행동이 되어버리고 만다. 두 작품속의 여성은 자의식이 조금씩 깨어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 그녀들의 계획이 실패로 끝남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변화 뿐만이 아닌 사회의 변화 즉, 남성들의 변화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망자」는 조이스가 말하고자 한 주제가 나타나는 작품으로 자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등장한다. 게이브리얼은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한 다른 남성들보다 더 교육받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며 자신의 아내를 자상하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의 이면은 다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제에 사로잡힌 더블린 남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자의식을 가진 여성들로 인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아일랜드 사회가 요구했던 언제나 순종적인 여성상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가진 릴리와 아이버스를 통해서 게이브리얼이 가진 남성 우월주의와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대주의 경향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여줌으로써 게이브리얼의 자아를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의 자아를 붕괴시키고 변화의 가능성을

이끌어 낸 인물이 바로 그레타이다. 그레타는 굉장히 밝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여인인 듯 보여지지만,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와 그녀에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드러내는 여성이다. 자신의 소유물로만 여겼던 그레타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게이브리엘의 자아는 붕괴되고 변화의 가능성을 이끌어 낸다. 조이스는 마지막 작품에 그레타를 등장시켜 이 작품을 통해서 여성들이 그레타처럼 주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편협한 남성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랐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무능력하면서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제에 빠져 사는 남성들과 그에 순응하며 사는 여인들로 인하여 더블린 사회가 더 이상 희망 없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릴리와 아이버스 그리고 그레타를 통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면모를 그대로 바라보게 된 게이브리엘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말하고자 한 주제인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이 그들의 삶을 바로 보도록 촉진한다. 그리고 조이스는 작품을 통해 사회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여성이며, 여성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남성들도 게이브리엘처럼 귀를 열고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섯 작품 속의 여성들을 통하여 조이스가 바라보는 여성상이 점차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이스가 넓은 시각으로 여성을 바라본 이 작품을 통해 조이스는 더 이상 여성혐오작가가 아니며 여성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동정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헌

- 김문숙. 「『죽은 사람들』 : 죽음, 재생, 그리고 여성」. 『제임스조이스저널』 9.1 (2003): 27-53.
- 김미령. 「『더블린 사람들』 에서의 여성 억압과 저항」.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상효. 「『더블린 사람들』 : 남성. 가부장중심주의와 그 해체」. 『신영어영문학』 55 (2013): 1-23.
- _____. 「『이블린』 : 더블린사람들의 거울」. 『솔피어문논총』 13.1 (2001): 81-103.
- 민태운. 「(탈)식민적 남성학적 관점에서 『더블린 사람들』 읽기」. 『제임스조이스저널』 13.1 (2007): 73-95.
- _____. 「『더블린 사람들』 에서 보이는 일상 속의 전쟁」. 『제임스조이스저널』 18.1 (2012): 23-41.
- 박윤기. 「『더블린 사람들』 에 나타난 "어머니"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현대영어영문학』 55.1 (2011): 101-18.
- _____. 「『에블린』 : 자유를 향한 도피의 좌절」. 『제임스조이스저널』 11.1 (2005): 5-19.
- _____. 「어머니들의 좌절된 꿈: 『하숙집』 과 『어머니』 를 중심으로」 29.3 (2003): 37-53.
- _____. 「여성주의 관점에서 읽는 제임스 조이스」. 『영어 영문학』 51.2 (2005): 283-303.
- _____. 「제임스 조이스 작품에 나타난 물, 물의 언어, 그리고 여성」. 『현대영어영문학』 51.1 (2007): 23-43.
- 안정숙. 「제임스 조이스의 여성인물과 대중담론: 거티와 이블린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45.1 (2003): 89-98.
- 이종일. 『더블린 사람들』. 서울: 민음사, 2012.
- 전은경. 「『진흙』 의 우화적 서술과 그 의미」. 『제임스조이스 저널』 14.1 (2008): 25-44.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New York: Cambridge UP, 1995.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2.
- Henke, Suzette A, and Elaine Unkeless. *Women In Joyce*. Urbana: U of Illinois P, 1982.
- Joyce, *Dubliners*. New York: Penguin Classics, 1993.
- Leonard, Garry. "The Masquerade of Gender: Mrs. Kearney and the Moral Umberalla." *Gender in Joyce*. Ed. Jolanta W. Wawrzycka and Marlena G. Corcoran. Gainesville: U of Florida P, 1997. 133-49.
- Walzl, Florence L. "Dubliners: Women in Irish Society." *Women in Joyce*. Ed. Suzette Henke and Elaine Unkeless. Urbana: U of Illinois P, 1982. 31-56.